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간의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 연구

— 창업영재캠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노현철* · 김경재**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창업영재캠프를 중심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함양수준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 기업가정신 수준이 진로인식의 변화에 어떤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및 진로교육을 위한 상호 연계·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기업가정신이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관계에서 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기업가정신 변화차이 등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성취욕구 등의 모든 요소가 진로인식에 정(+)¹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관계에서 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혁신성, 진취성, 자율성, 성취욕구 등이 정(+)¹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위험감수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 교육 전과 후의 변화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정(+)¹의 유의한 변화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보다 학생의 참여와 체험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부처 내에 기업가정신 교육 협의체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및 기업가정신 교육, 진로교육이 종합적으로 연계 운영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인식, 창업영재캠프

I. 서 론

1. 연구목적

기업가정신은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중추적인 시대정신이며, 글로벌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맥스플랑크연구소, IMF 등)들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관건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 교육 이수자가 미 이수자에 비해 창업은 3배, 연 수입은 27%, 자산은 62%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미래부, 2015).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 (2011)를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선언하고 카우프만재단 등과 민간차원에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슬로 어젠다(2006)를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 의무화를 선언하여 2015년말 기준으로 초·중등학교의 67%, 고등학교는 100%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청은 벤처창업 붐 확산을 정책 기조로 기업가 DNA 발굴과 형성을 위해 추진 중으로 초·중·고등학교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으로 청소년 비즈쿨 지정학교를 확대(2016년 448개교→2017년 504개교) 운영하고, 창업선도대학을 신규 8개교를 포함 총 4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도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교과에 반영하고 교육대상에 있어 2018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창업교육, 특허청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 등 부처 및 지자체별로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고 기업가정신 수준과 역량강화에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I)는 전체 137개국 중 27위(2017), OECD국가 35개국 중 23위(2016)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기업가정신 지수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비생산성, 기업부문의 성장의지 하락, 개인부문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 선호 등의 파악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16). 혁신주도형 국가를 지향하고 4차 산업혁명을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생애주기별 기업가정신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첫 단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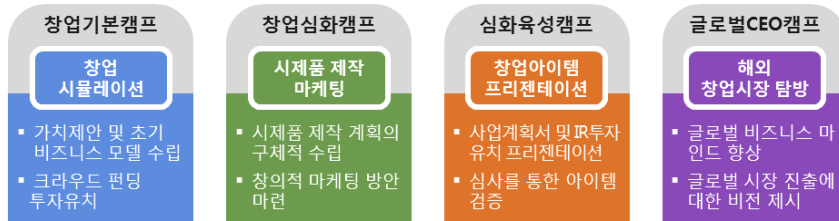
한편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학생들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고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혁신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가상(VR), 증강현실(AR)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의 강의식, 암기식 수업을 토론과 실습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7). 즉,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의 적성을 발견하고 경력개발을 통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비즈쿨은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즈쿨 운영학교를 선정하여 기업가정신 이론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체험 프로그램, 청년CEO 기업가정신 특강 등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비즈쿨 지원사업 중 창업영재캠프는 우수 창업동아리 학생들에게 아이디어 발상부터 시제품 제작, 멘토링, 아이디어 경진대회, 글로벌 해외연수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하계 방학 때부터 12월까지 4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창업진흥원, 2017).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적합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창업영재캠프를 중심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함양수준 및 효과성

을 검증하고 기업가정신 수준이 진로인식의 변화에 어떤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및 진로 교육을 위한 상호 연계·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창업영재캠프 운영 프로세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전·후간 변화정도 및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 비즈쿨 지원 사업 중 창업영재캠프 참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인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전수로 실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영향관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진로인식의 필요성과 정의

청소년 창업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다양한 진로모색을 유도하며 청소년들의 기업가적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킴으로써 이들을 미래의 산업 원동력으로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들

의 진로교육의 방향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핵심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기반임을 알 수 있다(박광오, 201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과거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직업 숫자는 4천여 개에서 2만여 개로 5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볼 수 있듯이 직업세계는 더욱 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경제 발전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특히 고학력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2015년 6월 진로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진로교육 체계 구축하고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통해 과도한 대학진학 및 전공 쏠림현상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진로교육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반영한 진로교육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

제, 진로교육은 여타 교육과정과 달리 직업과 진로 교과목, 그리고 타 교과목과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과활동과 비교과 활동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타 교과목에서도 이루어지는 진로개발역량 함양의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 중심의 교실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중심의 참여적, 체험 중심적 교육과정이다. 진로교육은 직업세계나 교육기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발전시켜가는 역량 개발이 목표인 만큼, 진로교육은 객관화된 지식을 수동적으로 흡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제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노동시장의 추세에 따라, 진로교육에서 새로운 진로나 직업을 창출하고 디자인해 보는 창의적 진로개발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기존직업들의 분화와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되는 것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디자인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진로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6; 김송숙, 2017).

이러한 청소년 진로교육 필요성에 근거하여 진로인식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인식(Career Awareness)이란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 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직업관의 개발, 진로

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여가 활동의 관계, 각 진로 추진에 필요한 기초 기능, 학력, 기술 등에 관한 소양, 자신의 감정적 능력과 앞으로의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개발하고 사고하며 이해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류지은, 2016).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평생 동안 학습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영향에 의해 성숙하고 발달해 간다. 이러한 인간의 발달 영역 중 중요한 부분이 진로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일 외, 2015). 진로인식은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반드시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학교교육의 근간이 되는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반드시 선행 학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짓는 초석이 될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진로인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초등학교에서는 자기의 자질 발견과 직업의 이해, 장래에 대한 포부, 일의 의미와 고마움 등 기본 정보에 익숙케 하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직업 세계의 탐색과 감정적인 진로계획의 수립,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한 직업 분야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준비시켜 직업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구축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사전에 준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임균택, 2001).

김동일(2015)은 진로교육은 진로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초·중·고등·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제도 내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상업 기관, 기업체와 밀접한 상호 작용을 갖고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문경목 외 2인, 2013). 이와 같은 청소년 진로인식에 대한 교육이 취업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교육 단계에서 중요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관계성의 연구가 필요하다.

2. 기업가정신의 개념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크기나 업력, 조직의 종류 등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기업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특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계속적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처음 기업가정신을 제안한 Schumpeter(1934)는 기술혁신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혁신가를 기업가로 보았다. Miller(1983)는 기업가정신의 속성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으로 구분하고 기업가정신을 정의함에 있어 기회 포착과 기회 추구를 강조하였고, Baron & Shane(2005)은 기업가 정신을 기업이 새로운 무엇을 창출하기 위해 이를 탐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였고, Gartner & Baker(2010)는 개인들이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기업수준을 끌어 올리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Czop & Leszczynska, 2011).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기업을 시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기회를 인식하고 비전, 변화, 창조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개념적 정의와 함께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연구를 보면,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 위험감수, 진취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재결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tevenson, 1999). 그밖에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 등(Covin & Slevin, 1991; 박상용·김연정, 2004)과 혁신정신, 위험감수, 도전정신(이정호, 2004), 성취욕구, 위험감수 성향, 내적 통제부위, 모호성 감수성향 등(Gartner, 2010; 조준희·김진수, 2014), 성취욕구, 혁신성, 위험성향, 통제위치 등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혁신성, 위험감수

성, 진취성, 자율성, 성취욕구 5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3.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3.1 혁신성

혁신(innovation)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의 질서, 공식에 도전을 주는 스킴(scheme)이면서 기존의 아이디어들의 재조합이고 관련된 개개인에 의해서 새롭게 인지되는 고유한 접근방법이라고 정의한다(Van de Ven, 1986). 혁신적인 과정은 제도적인 맥락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혁신의 과정 측면을 강조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유용한 제품, 유용한 서비스 및 운영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

West & Farr(1989)는 혁신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혁신은 혁신에 따르는 예상되는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혁신으로 인한 예상이익은 기업의 수익성과 같은 재무적 이익은 물론 혁신을 받아들이는 조직의 이미지 제고와 같은 상징적인 이익도 포함하며 예상이익으로 도움을 얻는 대상은 혁신을 하는 조직과 조직 내의 구성원은 물론 조직 내의 집단 또는 조직의 환경이 되는 이해관계자 집단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ogers(1995)는 개인이나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지각하는 아이디어, 실행방법, 대상 등을 채택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혁신을 정의하면서 혁신적 과업의 성공 여부는 혁신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혁신을 수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자의 혁신성향을 모험적 혁신자, 존경받는 초

기 채택자, 신중한 초기 다수파, 회의적인 후기 다수파 및 전통적 혁신 지체자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혁신적 과업의 성공 여부를 검토하였다. Law(1990)는 다양한 대안탐색과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 실행하는 선택적인 보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혁신은 대안탐색과 선택적 보존과 결과산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Damanpour & Evan(1994)은 혁신을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보고 기술적 혁신과 관리적 혁신으로 구분하면서 기술혁신은 새로운 상품, 서비스 혹은 공정, 서비스의 운영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혁신은 조직의 사회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혁신을 개인이나 조직의 기능에 관련된 규칙, 절차, 구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혁신에 관한 종합모형을 제시한 최만기·이지우(1999)는 혁신에 대한 정의에 앞서 혁신에 관한 주체, 동기, 목적, 내용,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성격규명을 전제로 조직혁신을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제도, 프로그램, 과정 또는 정책 등을 자체적으로 창안 개발 및 실용화하거나 이미 개발,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제도, 프로그램, 과정 또는 정책 등을 인지, 도입 및 사용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직혁신의 주체가 조직이며 이는 혁신과 아이디어가 구성원들로부터 나오지만 이 구성원들은 조직의 한 하위시스템이며 특정 구성원의 혁신을 제안하고 수행하게 하는 것은 조직이므로 조직혁신의 주체와 분석수준이 조직수준이라고 하고 있다(신진교·임재현, 2014). 또한 혁신의 동기로서 의도적 동기에 의해 혁신이 이루어지지만 Drucker(1993)가 언급한 사전계획 없이도 우연히 혹은 환경변화에 수반하여도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언급하면서 혁신동기의 비 의도성을

언급하고 있다.

혁신의 목적에 있어서는 혁신의 주목적이 경제적 수혜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 같은 행동적 목적과 혁신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같은 상징적 목적(Downs & Mohr, 1980) 등 혁신의 목적이 다양화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조직이 사회 속에 한 하위시스템으로 제도화되면서 이미지관리가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유도하는 주된 요인으로 후기 산업사회의 조직에서는 경제적, 도구적 역할보다 상징적, 제도적 역할의 중요성으로 설명하고 있다(Roseman, 1992). 즉, 조직혁신의 목적을 경제성에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혁신의 내용에 있어서 대상에 따라서 기술혁신, 관리혁신, 과정혁신 등으로 구분되나 조직혁신의 대상이 조직의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결과적으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혁신들도 모두 조직혁신의 내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과정에 있어서는 아이디어의 창출과 개발 그리고 채택과 실행(Van de Ven, 1993)으로 보고 이 단계들에 대한 조직혁신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한 혁신이 조직 내부로부터 나오는가(self-made innovation) 다른 조직의 혁신을 채택하는가(imported innovation)를 조직혁신 과정연구에서 구분할 것을 강조하고 혁신정의에서 자체적인 혁신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이 원천이 내부인가 외부인가 하는 영역은 오늘날 경쟁 환경에서 효용성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다. 또한 혁신이 단순히 조직 내부 또는 조직구성원들로부터만 기인하고 동기화 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혁신의 원천과 동기 영역에 대한 구분은 의미가 약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동 및 실제적으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과정으로 제품혁신이나 공정 혁신과는 구별되는 조직 내 구성원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 태도 및 행동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2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사업성공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활동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으로, 낮은 위험의 프로젝트보다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선호하여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Covin and Slevin, 1991)을 말한다. 여기서 ‘위험(Risk)’은 무모함과 다른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의미하는데, 창업가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바로 이 같이 자신이 원하는 일에 있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들 수 있다. Sexton & Bowman(1986)은 위험감수성을 불확실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의지의 정도로, 위험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것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조윤희(2013)는 사업의 리스크와 위험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위험도는 높지만 높은 성과에 대한 기대로써 감수하려는 자세로 위험감수성을 정의하였다.

실제 연구에서도 창업자들이 관리자들보다 위험감수 성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Stewart, 1991), 위험감수성은 창업의 성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진취성

진취성(Proactiveness)은 낙관적 사고로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경쟁자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 및 프로세스를 소개하여 시장 내에서 선점자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 성향을 의미하며 창업가의 강한 진취적 성향은 창업가나 기업에게 시장에서의 변화나 욕구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며, 시장 선점자로서 브랜드 정체성의 구축, 관리 기술의 실행 및 산업 내 새로운 기술의 적용 및 새로운 관리 기술의 실행 등이 가능하다(Lieberman 1988).

Lumpkin & Dess(1996)는 시장 내에서 상대적인 경쟁적 지위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 경쟁지와 경쟁자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산출하려는 의지, 그리고 경쟁자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높은 강도로 도전하려는 자세를 모두 포함한 것이 진취성이라 설명했다.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행동이다. 진취성이 높은 기업들은 시장의 변화나 경쟁자들에게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관리적 기법 등을 시도한다.

국내 연구에서 이춘우(1999)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에 맞는 경영활동을 하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회를 찾아내고 포착하는 경영활동이라 말로 진취성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진취성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 선제적 기술능력과 지속적 신제품 출시,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같은 진취적 활동을 통해 경쟁우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김상훈, 2014)

3.4 자율성

자율성(Autonomy)은 “팀이나 개인이 비전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개인이나 팀의 활동이 대규모 조직의 전통적 규범 안에서 제한되는 환경에서, 새로운 벤처 지향적 접근과 기업가적 행동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특성이다(Lumpkin,

1996). 즉, 자율성은 직원들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향상시켜 기업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자율성은 자기결정성 이론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창업자 스스로가 창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믿음과 그 능력, 그에 따른 창업자 자신 스스로가 행하는 경영 활동을 포함한다. 자율성은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개인적 특성이자 원동력으로 연구되어 왔으며(Van Gelderen & Jansen, 2006), 심리적·행위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창업자는 실제 경영 활동에서 자기효능감이 보다 더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의 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auch & Frese, 2007).

3.5 성취욕구

성취욕구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 물질적 사물·인간, 또는 아이디어에 정통하고 이들을 조직화하려는 의욕, 가능한 한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의욕,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는 의욕, 자기 자신을 타인보다 탁월하게 만들려는 의욕, 타인과 경쟁에서 그들을 능가하려는 의욕,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포함된다(하문선·김지현, 2013). 기업가의 특성들 중 높은 성취욕구는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개념이다. 높은 성취욕구를 소유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실천하며, 이에 대한 성과 혹은 결과에 관한 피드백을 끊임없이 탐색한다. 따라서 성취욕구는 기업가의 활동에 대한 주요한 동기부여 요소이다. Sexton & Bowman-Upton(1991)은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 높은 성취욕구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취 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잘 설

계된 훈련으로 기업가정신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공적인 기업가는 보통사람들보다 성취욕구 부분에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성취욕구는 기업가의 보편적 특성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가와 정치, 종교, 예술, 교육 등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가제(Y. Gasse)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동기요인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성취욕구는 경제적 수익의 욕망을 나타낸다고 주장되어지고 있다. 이민정(2016)은 성취욕구를 포함하는 창업전략요인과 사업수행능력 및 아이디어 활용능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강원덕(2009)은 성취동기와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4. 기업가정신 교육과 진로인식 관계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의 비즈쿨 사업이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국 초·중·고의 약 4%에 불과한 504개 학교에서 비즈쿨 수업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 정규과목이 아닌 방과 후 활동시간에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선진국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기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기업가정신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한정화는 2012년 10월 5일에 열린 ‘기업가정신

교육활성화 심포지엄(아산나눔재단, 2012)'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기업가정신 교육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을 길러나갈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카우프만재단 등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펴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미국 창업교육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초·중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 사회적 계층이동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진로 관련 관계 연구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가정신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사회적, 교육적으로 중요해 지고 있어 향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에 연구된 몇 가지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중·고학생의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정책시사점에서 비즈쿨 사업 참여학생 1,12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 후에 기업가정신과 진로의식이 뚜렷하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확산이 더욱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필요성과 중요성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고(김진수 외 공동연구, 2014), 비즈쿨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업계고등학생의 진로지도 연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하였고(최선정, 2007), 하현정(2007)의 청소년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및 자기효능감 영향관계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이 진로인식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창업교육 참여 여부와 창업 및 진로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창업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비참여 학생에 비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로에 대한 인식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박재희, 2008).

그밖에 문경목(2013)에 의하면 청소년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특기 및 적성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나타낸다. 박윤희(2001)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창업교육 활성화에서 진로교육을 통하여 진로의사 결정을 위한 선택으로 창업을 인식시키고 창업에 관련된 독립교과를 신설하여 기업가정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고재윤(2006)은 창업교육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마인드와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진로선택에 대한 마인드와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창업교육의 참여여부에 따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성과 수업의 준비도는 유의미한 강한 정(+)의 관계를 보이며, 또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도와 수업흥미도가 유의미한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관계를 보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이라고 하겠다.

5. 프로그램 만족도

창업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교육서비스 품질과 기대 수준의 충족이 복합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교육서비스의 질이 교육만족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른 자신감이 창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김용태, 2013).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의 인지된 교육서비스 품질과 기대수준의 충족에 복합적인 결과물로 나타난다(이우진·김진수·김용태, 2013). 많은 학자들이 서비스의 품질은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Bigne et al,

2003).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심리에 상응하여 학습자가 느끼는 정서적 태도 및 욕구의 만족 정도를 의미하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스러운 효과는 개인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욕구의 충족을 만족시킴으로서 교육의 효과를 상승시킨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 또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경영성이나 창업성과, 조직유효성의 한 종속변수나 요인으로 두고 분석을 해오고 있다(이상화·하규수, 2015).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지식의 습득과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업교육은 미래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관한 역량지식과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창업능력을 배양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경희·김진영, 2011). 따라서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의 창의성개발, 도전의식 함양, 자율성을 높여 미래의 성공한 기업가를 꿈꾸는 진로변화에 희망을 주기에 적합하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들이 기업가로 성장하고 성공 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통하여 학습자가 욕구의 충족을 촉진 받음으로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청소년 창업교육과 진로인식 변화와 관련한 연구를 보면 진로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교육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민철, 2014), 비즈쿨 참여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진로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되었다(문경목 외 공동연구, 2013). 또한 정의정(2014)의 연구에서도 비즈쿨 창업교육과 연계한 진로탐색교육 효과분석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변화 관계에서 매개효과 가설을 설정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의 설계

1. 연구가설 설정과 연구모형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3가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성취욕구 등과 진로인식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둘째, 양자 관계에서 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영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기업가정신 변화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H1 기업가정신은 진로인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혁신성은 진로인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위험감수성은 진로인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진취성은 진로인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자율성은 진로인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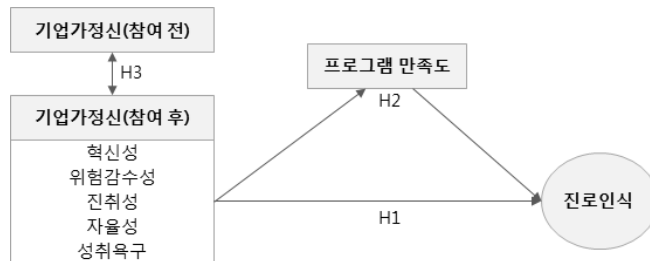
H1-5 성취욕구는 진로인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프로그램 만족도는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간에 정(+)¹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2-1 프로그램 만족도는 혁신성과 진로인식

- 간에 정(+)¹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H2-2 프로그램 만족도는 위험감수성과 진로인식간에 정(+)¹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H2-3 프로그램 만족도는 진취성과 진로인식간에 정(+)¹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H2-4 프로그램 만족도는 자율성과 진로인식간에 정(+)¹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H2-5 프로그램 만족도는 성취욕구와 진로인식간에 정(+)¹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H3 창업영재캠프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따라 기업가정신에 정(+)¹의 변화차이가 있을 것이다.
- H3-1 창업영재캠프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 따라 혁신성에 정(+)¹의 변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3-2 창업영재캠프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따라 위험감수성에 정(+)¹의 변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3-3 창업영재캠프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따라 진취성에 정(+)¹의 변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3-4 창업영재캠프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따라 자율성에 정(+)¹의 변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3-5 창업영재캠프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따라 성취욕구에 정(+)¹의 변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2> 연구모형

2. 표본의 설계와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실증조사를 위해 창업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7월과 12월에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총 12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며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고 직교회전기법인 베리맥스 절차(varimax procedure)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가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05가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이상, 요인적재치가 0.06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변수의 측정

기업가정신으로 혁신성은 창조적이고 독창적

인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행동하며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여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과정(Covin & Slevin, 1991)이며,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함 속에서 도전하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또는 행동(Dess & Lumpkin, 2005), 진취성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려는 노력 또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Evans & Wurster, 2000), 자율성은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일하고자 하는 욕구(Feldman & Bolino, 2000), 성취욕구는 어떠한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하려는 바람(이승재 · 황보운, 2010)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구성요소의 측정문항 구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권미영, 2013; 이지우, 2000). 각 요소별 문항은 기업가정신 구성요소가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교육환경, 교

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반영한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조영준, 2014). 진로인식은 진로계획 설정, 특기 및 적성 파악, 진로에 대한 준비, 진로에 대한 자신감 등 4개 문항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허은정, 2016).

IV. 실증분석과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창업영재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들의 특성을 <표 1>에서 보면, 학교별 특성은 특성화고 59%, 일반계고 27%, 마이스터고 14% 등으로 참여하였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68%, 1학년이 23%, 3학년이 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수	백분율(%)
학교별 참여인원	특성화고	71	59
	일반계고	32	27
	마이스터고	17	14
학년	1학년	28	23
	2학년	81	68
	3학년	11	9

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기업가정신<표 2>, 프로그램 만족도<표 3>, 진로인식<표 4>에서 보면, 먼저 <표 2>에서 기업가정신의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총 5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변량의 75.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계수를 측정된 결과, 성취욕구(0.944), 혁신성(0.957), 진취성(0.915), 위험감수성(0.896), 자율성(0.915) 등 모든 요소가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 3>의 매개변수인 프로그램 만족도와 <표 4>의 종속변수인 진로인식 역시 동일한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기업가정신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아이겐벨류 (누적분산%)
	1	2	3	4	5		
성취욕구_5	.910	.141	.113	.124	.153	0.944	12.969 (44.721)
성취욕구_3	.897	.171	.053	.067	.199		
성취욕구_4	.892	.110	.089	.126	.128		
성취욕구_1	.728	.181	.096	.137	.312		
성취욕구_2	.715	.124	.051	.097	.264		
혁신성_2	.146	.876	.230	.143	.170	0.957	3.329 (56.200)
혁신성_1	.126	.867	.230	.123	.192		
혁신성_3	.144	.827	.211	.056	.148		
혁신성_5	.205	.796	.164	.207	.307		
혁신성_4	.176	.766	.212	.124	.275		
진취성_4	.075	.244	.826	.165	.064	0.915	2.390 (64.441)
진취성_2	.103	.131	.817	.231	.168		
진취성_3	.182	.212	.781	.249	.146		
진취성_1	.008	.152	.781	.260	.187		
진취성_5	.051	.206	.723	.176	.193		
위험감수성_4	-.018	.060	.152	.840	.075	0.896	1.706 (70.325)
위험감수성_2	.167	.207	.247	.789	.116		
위험감수성_5	.291	.049	.177	.785	.027		
위험감수성_1	-.032	.082	.220	.769	.326		
위험감수성_3	.229	.221	.350	.690	.043		
자율성_2	.283	.315	.139	.079	.821	0.915	1.475 (75.412)
자율성_3	.288	.294	.146	.117	.807		
자율성_1	.250	.209	.223	.067	.682		
자율성_5	.186	.214	.248	.293	.643		
자율성_4	.400	.180	.262	.209	.602		

<표 3> 프로그램 만족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성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아이겐벨류 (누적분산%)
프로그램 만족도1	.835	0.914	4.772 (71.045)
프로그램 만족도2	.932		
프로그램 만족도3	.812		
프로그램 만족도4	.851		
프로그램 만족도5	.720		

<표 4> 진로인식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성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아이겐벨류 (누적분산%)
진로인식1	.921	0.940	5.630 (76.650)
진로인식2	.933		
진로인식3	.824		
진로인식4	.877		

3.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정에 앞서 변수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하여 변수들간의 관계특성을 파악하여 가설검증에 대한

토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인식과의 관계 간에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변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성취욕구	프로그램	진로인식
기업가정신	혁신성	1					
	위험감수성	.185*	1				
	진취성	.336**	.221**	1			
	자율성	.530**	.255**	.441**	1		
	성취욕구	.502**	.425**	.503**	.325**	1	
프로그램 만족도	.458**	.332**	.410**	.421**	.350**	1	
진로인식	.470**	.371**	.368**	.340**	.482**	.431**	1

4. 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표 6>에서 설정한 <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간의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진로인식에 대해 73.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p < .001$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에서는 혁신성(.237), 진취성(.118), 자율성(.122), 성취욕구(.401) 등이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위험감수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설검증 결과(<가설 1>,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영향 관계)

가설	β	t	p	Result	
상수	0.533	1.829	0.000		
H1	혁신성→진로인식	0.237	4.245	0.000	지지
H2	위험감수성→진로인식	0.064	0.518	0.605	기각
H3	진취성→진로인식	0.118	2.033	0.045	지지
H4	자율성→진로인식	0.122	2.738	0.007	지지
H5	성취욕구→진로인식	0.401	8.129	0.000	지지

$R^2=0.735$, $F=14.188$, $p=.000$

<표 7> 가설검증 결과(<가설 2>, 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

가설	β_1	β_2	β_3	β_4	Result	
H1	혁신성→프로그램 만족도→진로인식	0.337***	0.237***	0.113***	0.240***	지지
H3	진취성→프로그램 만족도→진로인식	0.221***	0.118*	0.118**	0.242**	지지
H4	자율성→프로그램 만족도→진로인식	0.167***	0.122**	0.118**	0.131**	지지
H5	성취욕구→프로그램 만족도→진로인식	0.244***	0.401***	0.240***	0.362***	지지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7>에서 설정한 <가설 2>의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간에 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아래의 가설검증 조건에 따라 이를 분석하였다.

회귀식	조 건
① $X2 = \alpha1 + \beta1X1$	회귀식 ①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beta1$ 가 유의해야 한다.
② $Y = \alpha2 + \beta2X1$	회귀식 ②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beta2$ 가 유의해야 한다.
③ $Y = \alpha3 + \beta3X1 + \beta4X2$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beta4$ 가 유의해야 한다.

X1: 독립변수, X2: 잠정적인 매개변수, Y: 종속변수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되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회귀식 ②에서보다는 회귀식 ③에서 더 작아진다($\beta2 > \beta3$).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수가 투입되어 종속변수(Y)에 대한 독립변수(X1)의 영향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이는 잠정적인 매개변수(X2)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강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aron & Kenny, 1986).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식 조건에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성은 종속변수에 유의하지 않아 제외하고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 7>에서 보면,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간의 관계에서 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보면, β

1, $\beta2$, $\beta4$ 의 값이 각각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beta3$ 값도 $\beta2$ 의 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매개효과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에서 설정한 <가설 3>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첫째,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성취욕구, 진로인식 등 모든 변수들이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변화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변화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설검증 결과(<가설 3>, 교육 전/후 차이분석)

구분	평균			t값	유의확률
	사전	사후	평균차		
혁신성	3.27	4.17	0.9	21.924	0.000
위험감수성	3.15	4.18	1.04	23.125	0.000
진취성	3.29	4.24	0.95	21.551	0.000
자율성	3.32	4.16	0.84	20.730	0.000
성취욕구	3.34	4.16	0.82	19.816	0.000
진로인식	3.16	4.20	1.03	22.019	0.0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 및 프로그램이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려고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내 창업영재캠프를 중심으로 하여 참가학생의 기업가정신의 변화가 진로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양자 관계에서 프로그램 만족도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창업영재캠프 프로그램 참가 전과 후의 기업가정신 변화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구성요소인 혁신성, 진취성, 자율성, 성취욕구 등 4개 요소가 진로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위험감수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환경에서는 청소년기에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진로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건이 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간에 창업영재 프로그램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효과 분석조건에서 제외된 위험감수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종속변수로 다루어진 연구결과에서 진로인식을 설명하는 상황변수를 확장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성취욕구 등과 진로인식이 창업영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따른 변화정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보다 학생의 참여와 체험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창업영재 프로그램은 이론중심보다 학교 내에서 다양한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문제인식, 사고다양성, 아이디어 제안 등 문제인식의 확장을 위한 교육과 함께 실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별 또는 팀별로 학생간 교사간에 자연스러운 토론과정을 거쳐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만 참여와 체험중심의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청과 교과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등은 교과부 즉,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처 내에 기업가정신 교육 협의체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현재,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소프트웨어 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이 종합적으로 연계 운영될 경우 보다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정규교과화도 가시권에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기업가정신 창업교육에 대한 교구재 및 콘텐츠에 대한 개발과 그에 따른 연구들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는 몇 가지 연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창업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평가했다는 면에서 일반화

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의 변화 정도에 대한 외생적인 상황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상황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강원덕(2009),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석사논문.
2. 고재윤(2006), “실업계 고등학교의 창업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3. 김경희·김진영(2011), “예비 서비스창업자의 동기요인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30(4), pp.511-537.
4. 교육과학기술부(2017), 2017년 업무계획.
5. 교육과학기술부(2016),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6. 김동일·김경선·이재호(2015), “계층분석을 이용한 지적장애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특성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0(2), pp.46-61.
7. 김송숙(2017),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설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8. 김진수·이창영·이혜영(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실태조사, 창업진흥원.
9. 박광오(2014), “대학의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33(5), pp.233-247.
10. 류지은(2016), “4년제 이공계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타협유형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1. 문경목·양영석·김명숙(2013), “창업교육 만족도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벤처창업연구*, 8(4), pp.9-23.
12. 박상용·김연정(2004), “벤처기업 CEO의 기업가정신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7(3), pp.3-31.
13. 박윤희(2001),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창업교육 활성화 연구”, *상업교육연구*, 2(1), pp.117-143.
14. 박재희(2008), “청소년 창업교육 참여 여부와 창업, 진로인식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15. 이상화·하규수(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5), pp.137-150.
16. 이우진·김진수·김용태(2013), “대학의 창업교육 품질이 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79, pp.105-131.
17. 이정호(2004), “기업가정신, 조직구조, 조직문화 및 조직성과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18. 이춘우(1999), “조직양트라프러뉴십의 역할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 임균택(2001),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 정의정(2014), “비즈쿨 창업교육과 연계한 진로탐색교육 효과분석”, *벤처창업연구*, 9(3), pp.89-95.
21. 조영준(2014),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pp.197-208.
22. 조윤희(2013),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투자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3. 조준희·김진수(2014),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17(2), pp.109-126.

24. 신진교·임재현(2014), “산업클러스터의 체계 성과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 R&D역량 및 기술혁신”, *경영과 정보연구*, 33(2), pp.171-188.
25. 최선정(2007), “비즈쿨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지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6. 창업진흥원(2017), 2017년 업무계획.
27. 하문선·김지현(2013), “초기 남자청소년의 도구성, 힘, 성취욕구와 자아존중감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1(2), pp.389-411.
28. 한정화(2012),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포럼, 아산나눔재단.
29. 하현정(2007), “청소년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 진로인식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30. 한국경제연구원(2016), 2016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추정.
31. Baron, R. A. and Shane, S. A.(2005), *Entrepreneurship: A Process Perspective*, Thomson South-Western, Mason, OH.
32. Baron, R. M. and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1177.
33. Covin, J. G. & Slevin, D. P.(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pp.7-25.
34. Czop, K. and Leszczynska, A.(2011),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veness: in search of the inter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and Learning*, 10(2), pp.156-175.
35. Damanpour, F. and Evan. W. M.(1994),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performance The problem of organizational lag”,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9, pp. 392-409.
36. Downs, G. W., Jr. and Mohr, L. B.(1980), Toward a theory of innovation. In Z. A. Agnew(Ed.) *Innovation research and public policy*, pp.75-100.
37. Drucker, P. F.(1993),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Press.
38. Feldman, D. C. and Bolino, M. C.(2000), “Skill Utilization of Overseas Inter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6, 29-47.
39. Gartner, W. B. and Baker, T.(2010), “A Plausible History and Exploration of Stevenson’s Definition of Entrepreneurship”,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0(4), 2.
40. Lumpkin, G. T. and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pp.135-72.
41.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pp.770-791.
42. Rauch M. and Frese, M.(2007), “Let’s put the person back into entrepreneurship research: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wners’ personality traits, business creation, and succes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4), pp.353-385.
43. Rogers, E.(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Fourth edition*, New York Free Press.

44. Roseman, P. M.(1992), *Post 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Insights, inroads. and intrus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45. Sexton D. L. and Bowman-Upton N.(1991), "Female and mal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ir role in gender-related discrimin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1), pp.29-36.
46. Stevenson H.(1999), *A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in The Entrepreneurial Venture*, Sahlman, W., H. Stevenson, M. Roberts, and A. Bhidé(eds.), Second ed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47. Stewart, T. A.(1991), "Brainpower: How Intellectual Capital is Becoming America's Most Valuable Asset", *Fortune*(June, 3): pp.44-60.
48. Van de ven, A. H.(1986), "Central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Management Science*, 32, pp.590-607.
49. Van G. M. and Jansen, P.(2006), "Autonomy as a start-up motive",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3(1), pp.23-32.
50. West, M. A. and Farr, J. L.(1989), Innovation at work. In M. A. West & J L. Farr (Eds.) *Innovation and creativity at wort Psychological and organizational strategies*, NY: John Wiley & Sons, pp.3-13.

Abstract

A Study on Mediating Effect of Educational Program Satisfaction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Career Recognition

– Focusing on the Founding Bizcool Startup Camp Program –

No, Hyun-Churl^{*} · Kim, Kyoung-J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vel and effectiveness of youth entrepreneurship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level and career change perceptions, And suggested ways of mutu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for activa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The research hypothesis is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career recogn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program satisfac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areer awareness, and the difference in entrepreneurship change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First, all factors such as innovativeness, risk sensitivity, entrepreneurship, autonomy, achievement desire, etc., Which are components of entrepreneurship, have positive influence on career recogni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program satisfac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areer recognition has positive effects on innovativeness, enthusiasm, autonomy and achievement desire. However, the risk sensitivity was not significant.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change before and aft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ll components of entrepreneurship were analyzed as positive (+).

Considering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method and cont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o focus on student participation and experie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and manage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uncils in government ministries with various stakeholders. Third, it is expected that future-oriented education will be possible if software educa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are integrated and operated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ey Words: Entrepreneurship, Program Satisfaction, Career Awareness, Youth Bizcool

* Doctoral Student, Dept of Business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First Author), imja04@naver.com

** Director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Corresponding Author), kimkj@kised.or.kr